

중부소식

KODC JungBu News

경기북부 직업병 안심센터-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간담회 개최



지난 11월 15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 직업병 안심센터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산재예방지도과와 건설산재지도과의 근로감독관들이 참석하여, 직업병 안심센터의 기능과 지역사회에서 직업병 예방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간담회는 경기북부 안심센터의 주요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역할과 기대되는 성과에 대한 발표

로 시작되었습니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 및 감독 방안, 그리고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강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지역 내 직업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 직업병 안심센터-노동부 2023년도 하반기 워크숍 개최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11월 3일 개최된 2023년 하반기 강원직업병안심센터와 고용노동부의 합동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원주지청, 강릉지청, 태백지청의 근로감독관들과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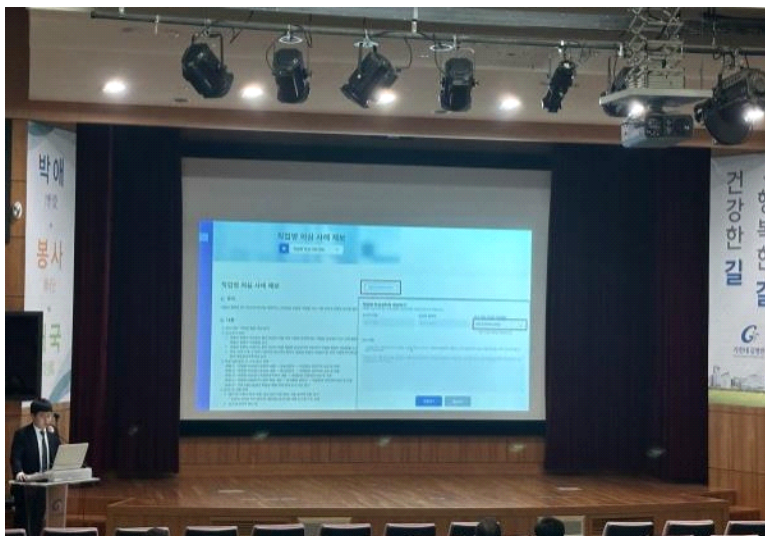
이번 워크숍은 강원직업병안심센터가 올해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

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직업병 예방 및 관리 방안,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대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강원 지역의 직업병 관리와 예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강원 지역 근로자들의 직업병 예방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인천·부천 권역 응급의료센터 간담회 참석

2023년 11월 10일 가천대 길병원 응급센터 가천홀에서 권역 응급의료센터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부천 권역 내 전원 및 최종치료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며, 인천·부천 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3개소, 인천 응급의료지원센터 등 총 29개소에서 응급의료기관 책임자 또는 전원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인천 직업병 안심센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센터 사업에 대한 설명과 사례보고방법 안내 및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번 인천·부천 권역응급의료센터 간담회 참석을 통해 협력병원 외 다수의 병원에 센터에 대해 알리게 되었습니다.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과의 상호 교류 및 협력 관계를 도모하여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업을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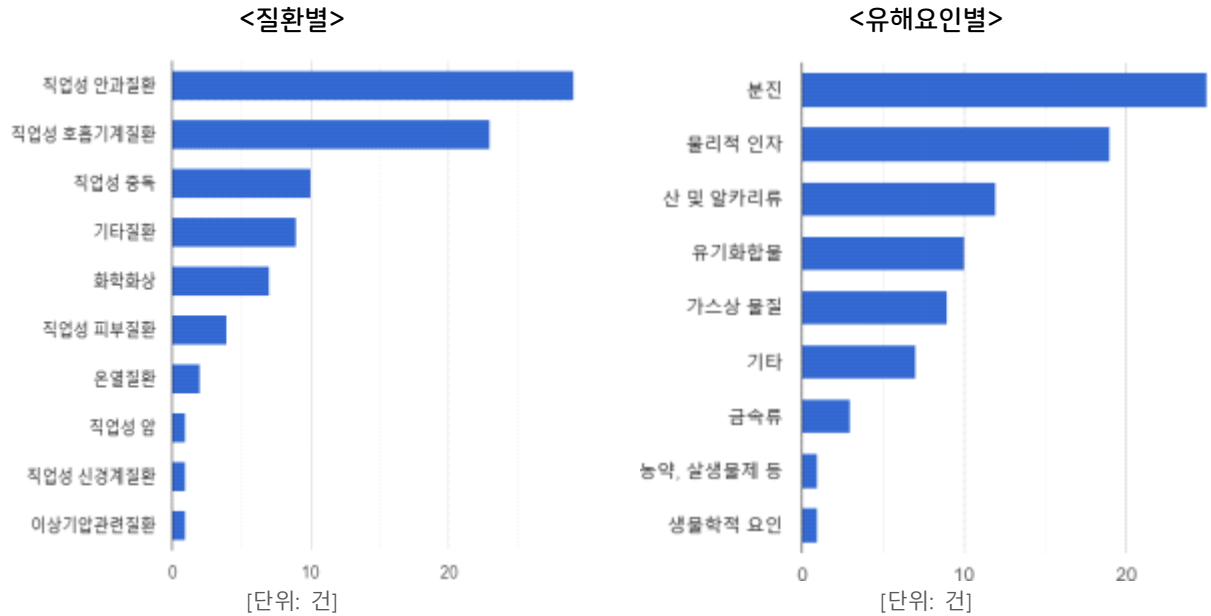
직업병엔 도너리(Don't worry)가 같이 합니다.



직업병 안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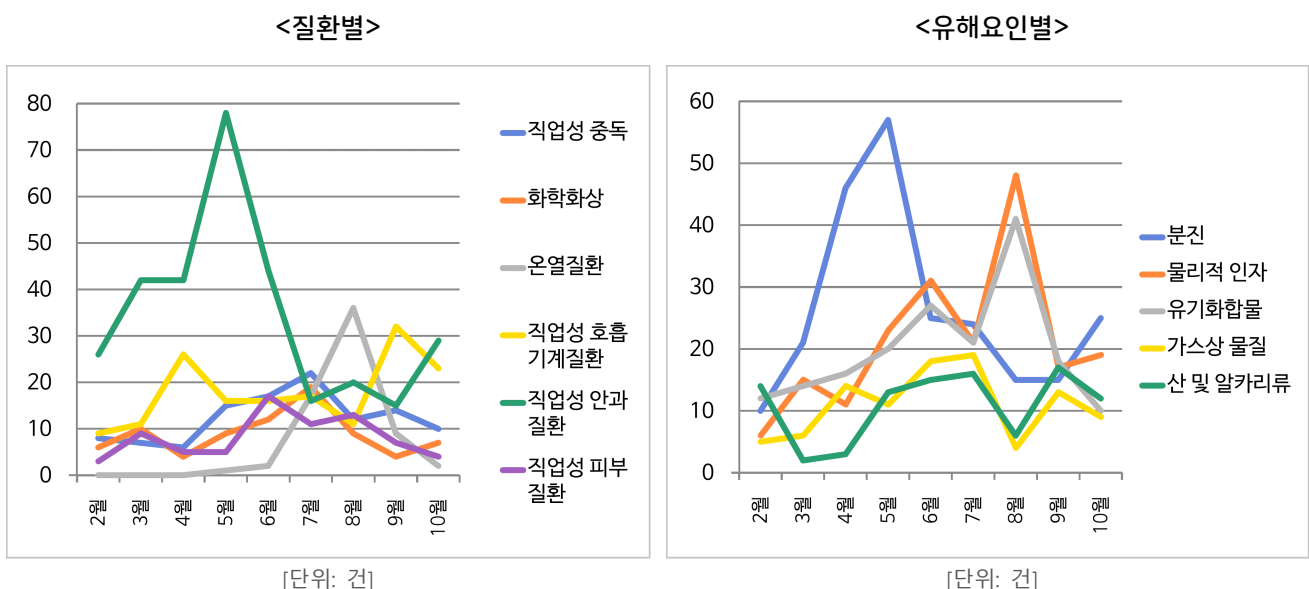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직업병

직업병 사례 통계 -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2023년 10월 (2023.10.01.~2023.10.31.)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부직업병안심센터에 총 87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질환별로 분류하면 직업성 안과질환 29건, 직업성 호흡기계질환 23건, 직업성 중독 10건, 기타질환 9건, 화학화상 7건, 직업성 피부질환 4건, 온열질환 2건, 직업성 암 1건, 직업성 신경계질환 1건, 이상기압관련질환 1건 등이었습니다. 추정 유해요인별로 분류하면 분진 25건, 물리적 인자 19건, 산 및 알칼리류 12건, 유기화합물 10건, 가스상 물질 9건, 기타 7건, 금속류 3건, 농약, 살생물제 등 1건, 생물학적 요인 1건 등이었습니다.

2023년 월별 직업병 사례보고 추이 -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직업병 사례

“농업 종사자의 진드기 노출에 의한 쯔쯔가무시병”

50대 남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다.

내원 2주 전 발생한 야간 발열 및 흉부의 피부 이상소견(딱지)로 집 근처 내과 의원 내원하였다.

내원 3주 전 지방에서 밭일을 하고 왔다고 하였다. 쯔쯔가무시병 의심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응급실에서 진행한 흉부 X-ray 상 특이소견 없으며, 혈액검사상 hsCRP 1.82 확인되었다. 기존 진단받은 내과적 기저질환은 없다.



진드기 노출에 의한 쯔쯔가무시병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쯔쯔가무시병은 진드기매개로 발생하며, 예방 백신이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작업과 야외활동시 양말,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를 입고, 풀밭에 앉지 않도록 하며, 진드기 유충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약품을 옷에 뿌린다. 또한, 야외 활동 이후 물린 자국이 보이거나, 발진 및 발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곡물싣는 배에서 일하는 선원의 살충제 노출에 의한 시신경염”

40대 외국인 남성으로 곡물을 싣는 배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분이다.

내원 2일 전 저녁에 갑자기 5분 가량 눈앞이 캄캄하게 보였고 이후 흐리게 보이면서 양안 통증도 발생했다고 한다.

하루에 5-6회, 3-5분씩 캄캄하게 보이는 증상 있었고, 흐리게 보이는 증상 호전 되지 않아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안과 협진 진행하였으며, 안과적 증상 외 두통, 팔다리 힘빠짐, 이상 감각 등 다른 증상은 없었다.

가끔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약물은 복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 168/106mmHg, 맥박: 82회/분 측정되었다. 다만 건강검진 받아본 적 없어 기존 고혈압 여부는 모른다고 하였다.

배에서 특별히 화학물질을 다루지는 않는다고 하며, 같이 일하는 다른 한 명도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하였다. 며칠 후 필리핀 귀국 예정으로 증상 호전되어 귀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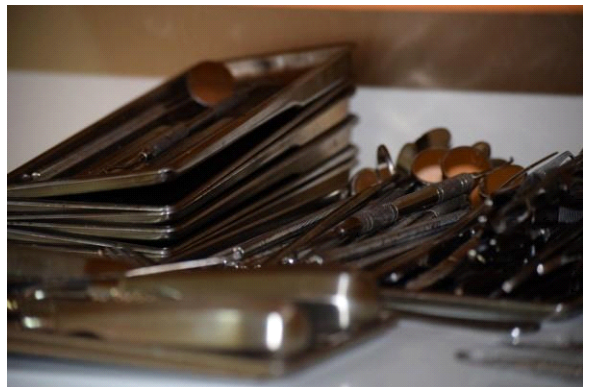
곡물에 남아있던 살충제 및 훈증제(메틸브로마이드) 노출에 의한 시신경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곡물을 싣는 배는 밀폐되어 있는 환경이므로 반드시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진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곡물에 사용하는 살충제에 대한 MSDS를 비치하여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종사자의 산화에틸렌 가스 노출에 의한 급성 중독”

50대 남성,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근무중인 분으로 2023년 9월 오후 6시 경 제품을 멸균 소독하기 위해 멸균기계 내에 밸브를 열어 산화에틸렌(EO, Ethyleneoxide) 가스를 주입하는 작업을 15분 가량하였다고 한다.

1시간 뒤 오심, 발한, 두통 발생하여 인근 병원에 응급실 통해 입원하였다. 입원 후 진행한 검사 상 뇌부종 및 독성 뇌병증을 진단받았다.



2023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센터에서 직업병 안심센터에 현장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10월 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센터와 함께 환기 등의 작업환경평가, 화학물질 사용 실태조사, 노출위험평가, 동료 근로자에 대한 건강 영향 문진 등의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물리적으로 멸균 기계의 문은 닫았지만, 음압을 걸어 주는 버튼을 눌러 주지 않아 밀폐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으며, 버튼을 잘못 눌러 평소보다 많은 산화에틸렌 가스를 주입했다고 진술하였다. 작업 중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적정보호구를 하지 않아 이로 인한 급성 중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당 사례는 멸균기계를 조작하는 업무 직후 발생한 산화에틸렌 급성 중독 사례로 뚜렷한 가스 노출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산화에틸렌 가스를 주입을 한 이후 1시간 뒤에 독성 뇌병증 증상이 발생하였다.

산화에틸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등급 1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발암물질로 호흡계통, 신경계통 등 다양한 건강 영향을 초래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산화에틸렌의 유해성과 건강영향으로 인해 취급상 유의가 필요한 물질이나 적정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고, 환기시설도 미흡하며, 산화에틸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도 시행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추후 산화에틸렌 취급 시 환기시설의 개선, 적정보호구 착용 조치를 시행하고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대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광산 근로자의 기타 광물성분진 노출에 의하여 발생한 진폐증 및 폐암”

60대 남성으로 광산에서 선산부로 근무, 약 1975년부터 광산에서 일용직으로 옮겨다니며 근무했다고 한다. 1979-1984년까지 약 5년 간 채탄 및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1984-현재까지 약 40여 년 간 잡곡 및 채소 등의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2023년 9월 조직검사 후 선암(폐암) 진단받고, 현재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다니며 경과 관찰중이다. 과거 진폐의 과거력이 있으며, 진폐장애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직업과의 연관성 의심되어 직업병 안심센터로 의뢰되었고, 산재신청을 위해 진행할 예정이다.



※ 제1급, 제3급, 제5급, 제7급, 제9급, 제11급, 제13급으로 나뉘어 있음, 이 중 11급은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광산 근로자들은 선산부(조장) 혹은 후산부(보조작업자)로서 채탄, 굴진, 착암 작업 등을 수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기타 광물성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례와 같은 직업성 호흡기계 질환에 이환되기 쉽다.

실제로 직업병 안심센터에 광산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분들의 상담 비율이 높은 편이다. 물론, 국내에 많았던 탄광들이 현재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과거에 광산에서 근무하셨던 많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관할지역 직업병안심센터에서는 광산 작업측정을 실시하여 유해물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연구해 볼 계획이다.

그 외 직업병 사례들

직업성 호흡기질환

- ◆ 철도공사 근로자의 용접흄 및 유리섬유(추정) 노출에 의한 섬유증을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
- ◆ 자동차정비사의 석면 노출에 의한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 ◆ 제조공장 도금작업자의 니켈, 주석, 기타 광물성 분진 노출에 의한 천식
- ◆ 기계설비업 종사자의 석면 및 분진 노출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성 중독

- ◆ 지하 하수관 작업 종사자의 황화수소 노출

화학화상

- ◆ 의약품제조업 종사자의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노출에 의한 화학화상

직업을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직업병엔 도너리(Don't worry)가 같이 합니다.



직업병 안심센터

대상

업무와 관련해 불편한 증상, 질환을 경험한 분

대표적인 직업성 질병

급성중독

(화학물질 노출 후 발생한 이상 증상 또는 질식, 열사병 등)

호흡기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천식 등)

신경계질환

(말초신경병증, 파킨슨증후군 등)

피부질환

(접촉성 피부염, 백반증 등)

간질환

(독성간염 등)

직업성 암

(폐암, 혈액암, 비인두암, 방광암, 신장암 등)

무엇을 도와주나요?

- 직업성질환 진단, 원인파악
- 직업병 예방 및 환경개선 지원
- 산재요양 필요여부 상담 등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초기 진료비 일부 지원
- 이후 직업성질환 진단 비용 일부 지원
(단, 외상성사고, 근골격계질환, 소음성난청 등은 제외)

문의 ☎ 1588-6798 (전국대표번호)

인천 직업병 안심센터
인하대병원
☎ 032)890-0843

강원 직업병 안심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033)741-0342

경기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고려대안산병원
☎ 031)8099-6311

경기북부 직업병 안심센터
한양대구리병원
☎ 031)560-2725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www.kodsc.org